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생각건대 8월에 이르면 두 개의 음이 자라고 두 개의 양은 사그러지므로 복에서 둔에 이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의리는 무궁하므로 미루어 보면합치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라의 정월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관괘는 임(臨)괘의 정반대 괘로서, 유(酉)를 건(建)으로 볼 때 8월에 해당하는 괘이며 또한 양이 사그러 들고 음이 자라나는 때이다. 문왕이 역을 연역할 당시인 상나라의 정월을 기준으로 말하면 임은 축(丑)을 건(建)으로 한 1월의 괘이다.

이로부터 신(申)을 건(建)으로 하는 8월에 이르면 그 괘가 비(비)이다. 음의 성장이 이미 왕성하고 양은 밖에서 사그러들어 천지가 교통하지 못하니 그것이 흉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왕이 역을 연역하면서는 음양을 주로 하여 말하였으니 왕정(王正)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만일 왕정을 사용하였다면 상나라의 정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괘를 시작(정월)으로 삼아야 했다. 하나라 정월조차도 끌어다 쓸 수 없는데 하물며 천하를 차지하기 전 유리에 갇혀 있을 때 이미 주나라 정월을 수립하였겠는가?

구이(九二)「상전(象傳)」'느끼어 임하는 것이니 길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명령에 순종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뜻이다[咸臨, 吉無不利, 未順命也].

이(二)와 오(五)가 감응(感應)하여 '길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구이가 아부하고 부당하게 굽실거리면서 윗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강중(剛中)의 도(道)로써 감응할 뿐을 말하는 것이다.

이른바 '명령에 순종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으로어찌 효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허물(咎)

「단전(彖傳)」하늘의 신묘한 도를 보니 사계절이 어긋나지 않는다. 성인이 신묘한 도로써 가르침을 펴니 천하가 복종하느니라[觀天之神道, 而四時不式. 聖人以神道設敎, 而天下服矣].

'신묘한 도'는 지극히 성실하여 쉼이 없는 자연의 오묘한 작용이다. 도를 마름질한 가르침은 성인이 마음과 지력을 통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다만 자연의 이치를 따라 분류하고 조절한 것일 뿐이다. 그 때문에 '신묘한 도로써 가르침을 편다'고 말하였다.

육삼(六三) 나의 삶을 관찰하여 나아가고 물러난[觀我生, 進退].

구오(九五) 나의 삶을 관찰하되 군자면 허물이 없으리라[觀我生, 君子无咎-허물 구].

상구(上九) 그 삶을 관찰하되 군자면 허물이 없으리라[觀其生, 君子无咎].

내가 생각건대, '나의 삶을 관찰하다[觀我]', '그 삶을 관찰하다[觀其]'에 대하여 정(程)-주(朱)는 모두 '스스로 자기의 삶을 관찰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주자어록 에는 "'나'란 저와 나를 대대(待對)하는 말로 저를 통하여 나를 관찰한다는 뜻이다. '그 삶을 관찰하다[觀其生]'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나'라고 칭한 것은 마주 대하는 저를 통하여 나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라고 칭한 것은 나에게 나아가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육삼인 신하가 자신의 도를 군주에게 행할 만한지를 스스로 관찰하여 그럴 만하면 나아가 벼슬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니, 이것이 군주를 동하여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다. 군주인 구오가 스스로 자신의 정치가 백성들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관찰하는 이것이 이른바 백성들을 관찰하여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것이다. 즉 상구가 스스로 행위의 득실을 자신에게서 관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정·주의 생각이다.

나는 감히 '나의 삶을 관찰하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삶을 관찰하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구는 한 괘의 맨 윗자리, 즉 매우 높은 곳에 있어 뭇 아랫사람들이 관찰하고 우러러보는 대상이다. 따라서 '그의 삶을 관찰하다'고 하였으니 뭇 아랫사람들이 그의 삶을 본다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처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된다면 자신의 행동이 군자의 도리에 합치한 뒤에야 허물이 없게 된다.

「상전」에 "'관기생'은 뜻이 편안치 못하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의 삶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그 마음속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려는 생각을 품고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전(程傳)'에는 아랫사람에 의해 관찰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관찰한다는 의미가 주이다. '본의'는 다만 '아랫사람의 관찰 대상이 된다'고만 하였으니 스스로 관찰한다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그 아래 "경계한 말이 대략 구오와 같지만 '나'를 '그'라고 했으므로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상구와 구오 모두가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객의 차이가 있을 뿐임을 의미한다. 또 '어록'에는 모두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괘에서 이른바 "큰 관으로 윗자리에 있다"라고 한 것은 위의 두 양을 가리키고, 이 효도 한 괘의 윗자리에 있고 아랫사람들의 관찰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이 그의 삶을 관찰한다는 것으로써 설명하였다. 살피는 이들이 나의 주제넘은 짓을 용서한다면 다행이겠다.

특별기고 〈61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13〉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권태휴 선생과 민영숙 여사의 슬하에 사이에 4남을 두었다. 장남 권영철과 자부 백선덕은 1남 1녀을 두었는데, 그 아들 권오현(미국명:Paul Kwon)은 미국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 육군 장교(의사;군의관)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권준 장군의 장증손자로서 증조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것 같다. 둘째 아들 권영혁과 둘째 자부 손경숙은 1남 2녀를 두었고, 셋째 아들 권영빈(중앙대 교수)과 셋째 자부 강정애는 2녀를 두었고, 막내 아들권영유와 막내 자부 최순선은 2남을 두었다.

앞서 연재한 글에서 밝힌바 있는데, 자료를 보내준 권준 장군의 손자인 권영빈 교수의 친가, 외가 중 독립유공으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분이 많다. 친가에는 권준(할아버지), 권태휴(아버지)-민영숙(어머니)과 외가에서는 민제호(閔濟鎬, 1890~1932, 상해·가흥·항주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외할아버지), 민필호(閔弼鎬, 1898~1963, 중경 임시정부 김구 주석 판공실장<비서실장> 겸 외무차장), 민영수(전 독립기념관 이사장), 민필호의 따님 민영주의 남편 김준엽(金俊燁, 1920~2011, 광복군 출신, 역사학자, 전 고려대 총장), 민영애 남편인 이윤철, 민영구 제독과 그 부인 이국영, 민영완 등 여러분이다. 기타 외가 친척 유명인사로서 민화식의 남편인 장면(張勉, 1899~1966. 정치가. 초대 주미대사, 제1·2공화국 국무총리, 부통령)이 있다.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 공적서]는 다음과 같다.

성명 : 권 준(權晙) / 본적 : 경북 상주 / 생년월일 : 1895. 5. 2

권준(權晙, 1895.5.2~1959.10.27)장군은 경북 상주군 함창면 척동리에서 태어나 1917년 광복회에 투신하여 격렬한 항일투쟁(抗日鬪爭)을 전개 하다가. 1919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북경에서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열단(朝鮮義烈團) (13人)을 조직하여 투쟁하다가 1926년 중국의 황포군관학교 제4기로 졸업하고 한국 중국 인도 몽고 안남 대만 등으로 조직된 대일본 항쟁을 위한 동방압박민족연합회(東方壓迫民族聯合會)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여 활약하였고 1927년 9월 27일 창립된 한국유일독립당 남경촉성회(南京促成會)의 회원으로도 참여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배경으로 독립운동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32년에는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남경(南京)에 한국인군사학교(韓國人軍事學校)를 설립 교관으로서 독립운동간부를 양성하면서 민족혁명당에 입당, 활약하였으며 광복군 제5지대장과 중경(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내무부차장(차관)(內務部次長-次官)을 역임하고 그 후 중국군 제87사단장으로 복무하면서 독립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며 항일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바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합류하여 내무차장, 광복군 제5지대장 등을 역임하시고 광복 후 무한지역 교포선무단 단장으로 혼란기의 중국 사회에서 동포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1945년 8월15일 종전으로 해방이 되고서는 한국임시정부 무한지구 교포실무단장(僑胞實務團長)으로 교포들의 귀국을 주선하며 돕는 일을 하느라 귀국이 늦어 졌으나 1946년 12월에 귀국하여 건군(建軍)에 참여 대령으로 임관하여 1949년 7월 12일에 초대 수도 경비 사령관에 취임하였다.

당시의 신문 기사에 "수도 서울시의 철통같은 건재를 위하여, 이번 국방부에서는 수도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여 유사시의 서울시 전 지역의 경비를 도맡게 되었는데, 동 경비사령관에는 권준 씨가 신임케 되어, 금 12일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소도경비사령관 재직시기인 1949년 8월 15일, 권준 장군은 '광복 1주년 기념식' 국군사열식을 지휘자로 당시의 신문기사는 "독립 1주년을 맞이한 15일, 육·해·공군 사열식은 사령관 권준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의 총지휘로, 12시 정각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각 부처장관, 그리고 채병덕·손원일 육·해군총참모장, 무쵸 대사를 위시한 각국 사절들이 사열대에 올랐으며, 군은 장병 5,700여 명이 시청 앞,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 중앙청 종로를 통하여, 동대문 앞에서 해산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권 장군은 육군 제1훈련소 소장, 초대 육군 3관구 사령관을 지내고 한국동란에 안동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임하여 안동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후 초대 육군 제50사단장에 부임하여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사단기를 수여받았으며, 대구의 50사단에서는 독립운동가 권준 장군이 초대사단장을 역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2013. 6 〔권준홀〕을 개관하였다.

권준장군은 195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으며,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6·25 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등을 받았다.

권 장군에 얽힌 일화도 있다. 현재 서울의 '소공로'를 당시 미군 대장이던 하지 장군의 이름을 따서 '하지로'라고 지으려는 이야기를 듣고 하지 장군의 방으로 찾아가 담판을 지어 이름을 무산시키고 원 이름을 보존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3)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6편옹야(雍也)

제28장

자공[子貢]이 말하였다. "만일 백성들에게 널리 은덕을 베풀어주고 능히 많은 사람들을 화난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가히 인자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공자가 말하였다. "어찌 인자함에서 그치랴. 그는 반드시 성자일 것이다. 요순[堯舜]일지라도 그렇게 하기에는 힘겨움을 느꼈을 것이다. 무릇 인자한 사람은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을 도달 시켜준다. 능히 가까운 자기를 가지고 남의 입장에 비유하여 이해할 수 있다면 가히 인자함에 이르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원문]

子貢曰 如有博施於民 而能濟衆하되 何如이니까 可謂仁乎리이까 子曰 何事於仁이리오 必也聖乎인저 堯舜道 其猶病諸시니라 夫仁者는 己欲立而達人이니라 能近取譬면 可謂仁之方也已니라. [자공왈 여유박시어민 이능제중하되 하여이니까 가위인호리이까 자왈 하사어인이리오 필야성호인제 요순도기유병제시니라 부인자는 기욕입이달인이니라 능근취비면 가위인지방야이니라.]

[이해]

자공[子貢]이 성인은 오십 후는 솜옷을 입고 칠십 후는 고깃국에 밥을 먹는 백성들을 거느리려 노력한다는 뜻을 취해 인자함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공자가 인자함에 이르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제7편술이(述而)

술이 편은 서른일곱 장(삼십칠 장)이며 성인이 자기를 겸하하고 남을 가르치는 말 그 용모와 행실 등속이 많이 다뤄져 있다.

제1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배운 것을 전술[傳述]하되 새로 만들어 내지 않으며. 옛 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나는 슬며시 저 노팽[老彭]에게 비교해 본다."

[원문]

子曰 述而不作하며 信而好古를 竊比於我老彭하노라. (竊→좀 도둑절, 사사절) [자왈 술이불작하며 신이호고를 절비어아노팽하노라.]

[이해]

공자[孔子[는 늘 선왕이 베푼 가르침을 밝히려고 애썼으며 반드시 사실을 중심으로 간절하면서도 유덕하고 겸허한 자세에 입각[入閣] 하였다. 여기서의 노팽[老彭]은 상나라의 현대부[賢大夫]로 대재례[大載禮]에는 믿을 만한 옛 일을 많이 전술한 사람이라 하였다.

제2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침묵하면서 깨달으며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남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은 점에 있어서야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원문]

子曰 默而識之하며 學而不厭하며 誨人不倦이 何有於我哉리오. [자왈 묵이식지하며 학이불염하며 회인불권이 하유어아재리오.]

[이해]

묵[默]은 잠자고 있는 것이고. 식[識]은 기억하는 것 또는 말하지 않으나 모든 것을 심득요해[心得了解]함이다. 공자[孔子]가 열거한 세 가지 자세는 어느 것 하나라도 지극한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 해내기 어려운 일들로 공자가 스스로를 겸하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제3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덕성이 닦아지지 않은 것과 학문이 익혀지지 않은 것과 신의를 듣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과 선하지 않음을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나의 근심거리이다."

[원문]

子曰 德之不修와 學之不講과 聞矣不能改는 是吾憂也니라. [자왈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 문의불능개는 시오우야니라.]

[이해]

덕이 닦이고 학문이 밝으며 정의에 용감하고 과오를 고침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격도야의 신경계를 열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듯하다.

제4장

공자[孔子]가 한가로이 지낼 적에는. "마음이 놓이는 듯 하였고 기색이 즐거운 듯 보였다.

[원문]

子之燕居에 申申如也하시며 夭夭如也로시다. [자지연거에 신신여야하시며 요요여야로시다.]

[이해]

공자[孔子]가 평상시 집안에서 절제된 가운데서도 화기[和氣]를 잃지 않고 넉넉하게 거처하는 생활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5장

공자가 말하였다. "심 하구나 나의 노쇠함이여 오래 되었다. 내가 다시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한 것이"

[원문]

子曰 甚矣라 吾衰我여 久矣라 吾不復夢見周公이로다. [자왈 심의라 오쇠아여 구의라 오불부몽견주공이로다.]

[이해]

주공[周公]은 주문왕의 작은 아들 희단[姬旦]. 형인 무왕[武王]. 조카인 성왕[成王]을 도아 주나라의 정치기초와 문물제도를 창제[創製]한 인물로 공자[孔子]는 늘 오매불망 주공의 도의와 덕성을 자신의 이상[理想]으로 존숭[尊崇]하여 그 이념과 제도를 성대히 재현 시켜보려는 포부를 지녔었으나 결국 성취를 이루지 못한 체 몸이 늙고 따라서 의지도 쇠약해졌으며 꿈속에 자주 보았던 주공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탄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繼續 省心篇 下

● 易에 曰(역에 왈) 德微而位尊(덕미이위존)하고 智小而謀大(지소이모대)면 無禍者鮮矣(무화자 선의)니라.

해설 : 주역에 이르기를 "덕이 적으면서 지위가 높으며,지혜가 없으면서 꾀하는 것이 크다면 화(禍)가 없는 자가 드물 것이니라."고 하셨다.

참고 : 주역(周易)은 삼역의 하나로 역경(역경)이라고도 하며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길흉 화복을 기록한 책으로 문왕(文王), 주공(周公), 공자(孔子)에 의해 대성한 역학이다. 易→바꿀역⇒(쉬울→<이>로도발음한다)謀→꾀모, 微→적을미⇒미약하다의뜻. 尊→높을 존, 位(위)尊(존)⇒벼슬이 높다는 뜻, 鮮→고을선, 깨끗할 선, ⇒드물다는 뜻도 있음.

● 說苑에 曰(설원에 왈)官苔於宦成(관테어환성)하고 病加於小癒(병가어소유)하며 禍生於懈怠(화생어해태)하고 孝衰於妻子(효쇠어처자)니 察此四者(찰자사자)하여 愼終如始(신종여시)니라.

해설 : 설원에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이의 도(道)는 지위가 높아지는데서 게을러 지고, 병은 조금 낫는데서 더해지며 재앙은 게으른데서 생기고, 효도는 처자 때문에 흐려진다. 이 네 가지를 살펴서 나중을 삼가 생각하기를 처음과 같이 할지니라."고 하셨다.

참고 : 설원(說苑)은 전한(前漢)때 유향(劉向)이 편찬한 유문일사(遺聞逸事)를 모은 책으로 즉 명인들의 일화(逸話)를 수록한 책이다.

說→말씀 설, 苑→동산 원,宦→벼슬 환, 懈→게으를 해, 怠→게으를 태, 愼→삼갈 신, 衰→쇠할 쇠, 약할 쇠, 癒→병 나를 유, 병문안 갈 때 겉봉에 쓰는 쾌유기원(快癒祈願)이라 쓰는 글자다. 宦成(환성)⇨벼슬이 이루어짐, 지위가 높아짐, 小癒(소유)⇨조금 낫는 것,

懈怠(해태)⇨게으른 것, 愼終(신종)⇨나중을 삼가하는 것, 四(사)者(자)⇨네가지

● 器滿則溢(기만즉일)하고 人滿則喪(일만즉상)이니라.

해설 : 그릇이 다 차면 넘치고, 사람이 다 차면 잃어 지느니라.

● 尺璧非寶(척벽비보)요 寸陰是競(촌음시경)이니라.

해설 : 한 자되는 둥근 구슬을 보배로 알지 말고 오직 짧은 시간을 귀중히 여길지니라.

● 羊羹(양갱)이 雖美(수미)나 衆口(중구)를 難調(난조)니라.

해설 : 양고기국이 비록 맛이 좋으나 뭇 사람의 입을 맞추기는 어려우니라.

● 益智書에 云(익지서에 운) 白玉(백옥)은 投於泥塗(투어니도)라도 不能汚穢其色(불능오예기색)이요 君子(군자)는 行於濁地(행어탁지)라도 不能染亂其心(불능염란기심)하나니 故로 松柏可以耐雪霜(송백가이 내설상)이요 明智(명지)는 可以涉危難(가이섭위난)이니라.

해설 : 익지서에 이르기를 "흰 옥(玉)을 진흙 속에 던진다 해도 그 빛을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혼탁(混濁)한 곳에 갈 지라도 그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다".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디어 내고, 밝은 지혜는 위급한 재난을 견디어 내느니라."고 하셨다.

● 入山擒虎(입산금호)는 易(이)어니와 開口古人(개구고인)은 難(난)이니라.

해설 : 산에 들어가 범을 잡기는 쉬우나, 입을 열어 남에게 고하기는 어려우니라.

● 遠水(원수)는 不救近火(불구근화)요 遠親(원친)은 不如近隣(불가근린)이니라.

해설 :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고, 먼 곳에 사는 일가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같지 못하느니라.

● 太公이 曰(태공이 왈)日月(일월)이 雖明(수명)이나 不照覆盆之下(부조복분지하)하고 刀刃(도인)이 雖快(수쾌)나 不斬無之人(불참무지인)하고 非災橫禍(부재횡화)는 不入愼家之門(불입신가지문)이니라.

해설 : 태공이 말하기를,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엎어놓은 동이의 밑은 비치지 못하고, 칼날이 비록 잘 드나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고 뜻밖의 재앙은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 太公이 曰(태공이 왈)良田萬頃(양전만경)이 不如薄藝隨身(불여박예수신)이니라.

해설 : 태공이 말하기를, "좋은 밭 만(萬)이랑이 있다 해도 작은 재주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고 하셨다.

참고 : 器→그릇기, 溢→너칠 일, 喪→복입을 상, 잃어버릴 상, 璧→구슬 벽, 競→다툴 경, 陰→그늘 음, 음침할 음, 羹→국 갱, 衆→무리 중, 雖→비록 수, 亂→어려울 란, 어지러울 란, 調→고를 조, 投→던질 투, 塗→바를 도, 진흙 도, 穢→더러울 예, 濁→흐릴 탁, 汚→더러울 오, 染→물들 염, 松→소나무 송, 栢→잣나무 백, 擒→사로잡을 금, 遠→멀 원, 照→비칠 조, 覆→덮을 복, 刃→칼날 인, 刀刃(도인)⇨칼날, 快→쾌할 쾌⇨盆→동이 분, 斬→벨 참, 災→재앙재, 橫→가로횡, 거스릴 횡, 頃→백이랑경, 萬頃(만경)⇨한없이 넓은 면적을 말함, 薄(박)→얇을 박, 隨→따를 수, 羊羹(양갱)⇨양고기국, 近隣(근린)⇨가까운이웃, 難調(난조): 맞추기 어려움, 泥塗(니도)⇨진 흙, 汚穢(오예)⇨더러운 것, 濁地(탁지)⇨혼탁한 땅, 染亂(염란)⇨어지럽히는 것, 松柏(송백)⇨소나무와 잣나무, 忍(인)⇨참을 인, 耐(내)⇨견딜 내, 忍耐(인내)⇨참고 견디는 것, 涉(섭)→물건늘 섭, 覆盆(복분)⇨엎어놓은 동이, 快(쾌)→쾌할 쾌, 빠름, 칼이 잘 듬, 非災(비재)⇨그릇된 재앙, 橫禍(횡화)⇨예기치 않은 화(禍(화)), 뜻 밖의 재앙, 愼家(신가)⇨조심하는 집.